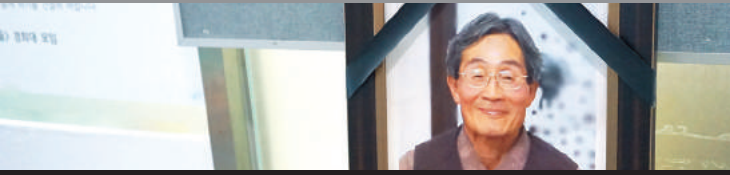


3» 김영란 법과 취업계 문제



8» 백남기 농민 추모제



2016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 서류제출기간 : 11월 1일 ~ 11월 24일
-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반] 에서 반드시 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내부 구성원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김영란법 교직원 대상 교육 장면이다 (사진=기호용 기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초미의 관심 교육부 능장 '지침' ... 관련 학생 혼란

김영란법, 대학은?

권유진 기자 hahay123@kh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취업계' 즉,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2일에 배포한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에서 조기 취업으로 강의를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준 뒤 취업계 관행이 '학점 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후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향의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서야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생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응방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너무 늦게 하달하는 바람에 대안을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들은 '자율적인 학칙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대안 마련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모두 전가했다'며 각종 취업계 관련 대안을 만드느라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대학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출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칙에서는 기준일수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질병이나 군대 등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취업계를 추가

한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계를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이 취업예정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 대안이 모든 대학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안, 이를테면 취업예정자의 경우 잔여 강의를 사이버 강의 형태로 수강하게 하거나 매주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당장 이것도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모두 당장의 혼란을 잠시 잠재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복잡한 상황이다. 애초에 취업계는 이 제도로 규정

된 바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제도 자체가 없었으니, 이번 학기 들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취업예정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과에서는 "학칙은 하루 이틀만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조기취업과 관련되어 개정이 된다면 2017년도에나 이뤄질 것"이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학기 취업계를 써야 하는 학생들에게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학사지원과 측은 "6주 이상 결석하면 낙제가 되므로, 개강 후 6주가 지나기 전인 오는 10월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수상자
김희현(무용학 2013)



“몸이 허락할 때까지 발레하고 싶다”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발레부문에서 김희현(무용학부, 2013)양이 '2등 없는 동상'을 수상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14개국 329명의 무용수가 참가하는 대회로써 13년의 짧은 역사에도 그간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본 콩쿠르는 2005년에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CID-UNESCO)에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우아한 손끝, 아슬아슬한 발끝 마치 한 마리의 백조를 연상케 하는 동작들의 향연. 발레는 오랜 기간 서양에서부터 사랑받아온 예술이다. 이번 대회에서 김희현(무용학 2013) 양이 '2등 없는 동상'을 받은 이유는 1등이 커플이었기 때문이다.

여자 발레부문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남자와 같이하는 커플 부문, 나머지는 솔로 부문이다. 이번 대회에서 커플 부문은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어 작품을 선보였던 반면, 솔로 부문은 짧은 1~2분의 작품을 4개 선보였다.

하지만 수상은 부문별 구분 없이 이뤄졌다. '2등 없는 동상'이지만 사실상 솔로 부문에서는 1위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테크닉 위주로 구성된 솔로 부문보다 단일 작품의 길이가 길고 춤에 서사가 깃든 커플 부문에서 수상작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 양은 6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지금까지 줄곧 발레에 몸담아

왔다. 발레를 처음 시작할 땐 단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였다는 그녀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격려, 그리고 무대를 즐기는 '맛'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발레는 몸의 아름다움이 중요한데,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속상했죠."

이번 대회는 유난히 그에게 고된 여정이었다. 2라운드 직전 탈수와 장염이 동시에 오는 바람에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이튿날 곧바로 무대 위에 서야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그래도 잘 끝났어 다행"이라며 웃는다.

이번 대회를 마친 소감을 묻자, 그는 체력과 정신력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열 명이 한 작품씩 돌아가며 총 세 곡씩을 선보여야 했어요. 한 곡 당 1~2분짜리인지라 숨찬 채 내려와서 숨찬 채 올라가는 벅찬 사이클이었죠.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발레계에서 꽃을 피우려 하고 있는 그에게 더 큰 꿈이 있다.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발레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어 춤을 추다가 안무가 겸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발레가 대중과의 소통이 미흡한 게 아쉬워요. 그 때문에 장래 한국발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 양은 이번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 'Swan Lake' 공연에 초청됐다. 오는 10월 중순에 출국해 해당 공연의 주연인 흑조 또는 백조 역으로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알림

사 령

(영)

기호용 의류디자인학(2012) 국제 뉴스총괄팀장
이정민 스페인어학(2014) 국제 영상총괄팀장
민성원 국제학(2014) 서울 영상총괄팀장

(영) 정기자

- ▲고등군 골프산업학과(2013)
- ▲김성수 컴퓨터공학과(2016)
- ▲김은수 프랑스어학과(2015)
- ▲김태윤 연극영화학과(2016)
- ▲이성은 응용물리학과(2015)
- ▲홍지수 도예학과(2015)
- ▲정현진 영어학과(2015)
- ▲임창민 언론정보학과(2014)
- ▲송현우 언론정보학과(2016)
- ▲박수현 언론정보학과(2015)
- ▲이예린 경영학과(2015)
- ▲권유진 사회학과(2014)
- ▲김태희 컴퓨터공학과(2015)
- ▲설지연 프랑스어학과(2015)
- ▲김태윤 일본어학과(2015)
- ▲경소정 한방재료공학과(2015)
- ▲김가영 도예학과(2016)
- ▲임채원 경제학과(2016)
- ▲양윤주 언론정보학과(2016)
- ▲박지영 언론정보학과(2016)
- ▲주현용 지리학과(2015)
- ▲장소영 호텔경영학과(2016)
- ▲고나원 경영학과(2016)

교육실천 혁신위, '수강인원 제한 없는 신청' 제안

수강신청 대란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김은수 기자 eunsu1031@khu.ac.kr

#. 수강신청 시작 후 30초에 한 학기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수강신청 '올클'을 꿈꾸지만 달콤한 상상에 그쳐버린곤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강신청 제도 변경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올클: 'All-Clear'의 준말)

우리학교의 현행 수강신청 제도는 수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우리 학교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수강신청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 2학기부터다. 이전까지는 수강신청 양식을 직접 작성해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왔다. 이후 학수번호 직접 입력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의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도 1학기부터 희망과목담기 서비스가 종학생회의 요구로 시행됐다.

조기 도입된 희망과목담기 제도는 답을 수 있는 과목 수에 제한이 없어 정확한 과목별 수요 파악이

어려웠다. 이후 답을 수 있는 과목수가 10과목으로 제한된 '예비과목담기'가 생기면서 희망과목담기는 본인이 수강 가능한 학점 내에서만 답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희망과목담기를 통해 예비 수강인원을 파악하고 강의의 수요에 따라 추가개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강의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과목담기로 수강신청이 편리함을 더한 것은 사실이지

만 근본적으로 수강 가능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치열한 경쟁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김주와(중국어학 2015)부회장 역시 "희망과목담기를 통해 수강가능인원 증설이 이루어지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희망과목담기는 장바구니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고 9월 2일 교육실천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5면으로 이어짐